

파트너즈·버서커 센프렌즈 “무등기 우승했어요”



제14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광일토너먼트에서 우승한 파트너즈 팀이 우승을 자축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제14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무등토너먼트에서 우승한 버서커 센프렌즈 팀이 우승을 자축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파트너즈와 버서커 센프렌즈가 14번째 무등기 왕좌의 주인공이 됐다.

광주일보와 전남문화가 주최한 제14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결승전이 27일 함평야구장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치러진 광일리그 결승에서는 파트너즈가 그린라인을 상대로 10-5 승리를 거두고 우승팀에 등극했다.

파트너즈는 킹가이즈와의 준결승에서 김강민의 활약으로 15-3, 4회 콜드승으로 제압하고 결승에 올랐다.

1회 그린라인에 1-2로 1점 뒤졌던 파트너즈는 선발 김강민이 3실점은 했지만 4탈삼진으로 5이닝을 지켜주면서 뒷심싸움을 펼쳤고, 3점을 뽑아낸 2회부터 격차를 벌렸다.

1번 김대원이 3안타 2득점 2도루, 5번 최윤희가 2안타 2득점 1도루를 기록하며 승리에 힘을 보탤다. 7번 이현도 5회 3점포를 기록하는 등 4타점을 책임지면서 승리의 주역이 됐다.

그린라인은 5번 국번석이 1안타 1득점 1사사구를 얻으며 분전했지만, 두 번의 주루사를 포함해 4차례의 아쉬운 주루플레이가 팀 패배로 이어졌다.

이번 대회 마지막 경기로 치러진 무등리그 결승에서는 센프렌즈가 에어패스 파죽지세를 4-1로 꺾었다.

파트너즈, 광일리그 결승에서 그린라인 상대로 10-5 승 무등리그-버서커 센프렌즈, 에어패스 파죽지세 4-1 제압 “대회에 참가하려는 팀 많은데 16개 구단 제한 많이 아쉬워”

센프렌즈는 이번 우승으로 무등기 대회 ‘3연패’를 이뤄냈다.

지난 2022년 대회 ‘포플레이 포비스’, 2023년 대회 ‘순환방방 원 포비스’라는 팀명으로 출전했던 센프렌즈는 3년째 우승컵을 거머쥐면서 광주·전남 사회인야구 최강팀임을 입증했다.

센프렌즈는 상무스타치과의 4강에서 5이닝을 1실점으로 막은 양하성과 멀티히트를 기록한 이현의 활약으로 9-1, 5회 콜드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다.

1회부터 3점을 만든 센프렌즈는 선발 양하성의 완투승으로 대회를 우승으로 마무리했다.

양하성이 7이닝을 7탈삼진 1실점으로 마운드를 지켰고, 3번

김석민은 2안타 1득점 1사사구로 팀 승리를 합작했다.

파죽지세 방민택은 3안타를 기록하면서 경기의 좋은 흐름을 만들었지만 센프렌즈 양하성의 호투에 막혀 경기 흐름을 뒤집는 데는 실패했다.

양 팀 준결승에서도 승리투수가 됐던 파트너즈의 김강민과 센프렌즈의 양하성이 결승에서도 팀을 우승으로 이끌며 각각 광일리그와 무등리그의 MVP로 선정됐다.

무등기 대회를 총괄한 이영현 사무국장은 “매 대회 같은 마음이지만 부상없이 모든 경기가 잘 마무리돼서 좋다”며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함평 경기장에서 대회 운영하기 편했고, 가장 많은

지원을 해준 광주일보사를 비롯해 후원사들과 협조적이었던 참가 팀들 덕에 무리없이 잘 마쳤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전남 무등기 대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팀들이 정말 많은데 16개 구단으로 제한되다보니 모두 수용하지 못한 게 아쉽다. 다음 대회에는 이번에 참가하지 못했던 팀까지 함께 ‘가을 잔치’를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와 함평 체육회가 주관했으며, 전남도와 KIA타이거즈가 대회 후원에 나섰다.

◇무등기 결승 전적

◆광일리그	
파트너즈	1311310 - 10
그린라인	2000102 - 5
▲최우수 선수 : 김강민	
◆무등리그	
에어패스 파죽지세	0000010 - 1
버서커 센프렌즈	300100X - 4
▲최우수 선수 : 양하성	

우승팀 감독 인터뷰

광일리그-파트너즈 이영준 “5년 전 최우수선수 선정 감독 첫 해 우승 큰 영광”

“감독 첫 해 무등기 대회에서 우승해 영광입니다.”

파트너즈의 젊은 사령탑 이영준 감독은 14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광일리그에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올해 25세의 이 감독은 “형들이 먼저 도와주려 하고 팀원들 모두가 감독으로서 존중해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팀을 이끌어 갈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20살이었던 지난 9회 무등기 대회에서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던 그는 5년 뒤에는 감독으로서 팀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이 감독은 “그때는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대회를 뛰었는데 당시 최우수선수상을 받은 것도 형들 덕분이었다. 그동안 팀원들이 10년 넘게 팀을 잘 만들어준 걸 나는 유지만 했다”며 “나이 차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느끼지 못할 만큼 서로 잘 어울리며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이 덕분에 올해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이번 대회 우승이 무등기 대회여서 더욱 특별하다고 말한다.

이 감독은 “무등기는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던 대회인데, 그때는 구경만 하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뛰게 됐다. 이런 대회에서 감독으로서 우승할 수 있어 큰 영광이다”며 “내년에도 무등기에 참가해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무등리그-버서커 센프렌즈 김경노 “신규 조화·열정의 선수들 덕분 팀원들 경기 즐기도록 힘쓸 것”

“늘 열심히 훈련에 임하는 선수들 덕입니다.”

버서커 센프렌즈 김경노 감독은 제14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무등리그에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며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했다.

김 감독은 “팀의 젊음”을 얘기하며 “새로운 선수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에 우승할 수 있었다. 우리 팀은 과거에 비해 젊어졌고, 선수들이 서로 잘 소통하며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연대감이 올해 우승의 비결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감독은 팀의 화합을 통해 선수들이 경기를 더욱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팀 훈련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대회 기간 동안에는 일주일에 두 번씩 연습하며, 필요할 경우 추가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선수들이 더 나은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항상 도전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팀워크와 열정이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말한 김 감독은 “선수들이 서로를 믿고 지지하며 함께 나아갈 때,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것 같다. 앞으로도 이 팀을 더욱 발전시키겠다”며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감독은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줘서 고맙다. 선수들을 보면 나도 감독으로서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팀을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진수 기자 jinggi@kwangju.co.kr

최우수 선수 인터뷰

광일리그-파트너즈 김강민 “꾸준히 연습한 게 우승 원동력 수비들 잘 받쳐 줘서 이겼어요”

“수비들이 다 받쳐줘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일리그 우승을 이끈 파트너즈의 투수 김강민이 대회 MVP에 선정됐다. 그는 이번 대회 승리 요인은 든든한 수비라며 동료들에게 공을 돌렸다.

김강민은 “저는 크게 한 것이 없고 수비들이 다 받쳐줘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다”며 “모두가 대회 내내 침착한 플레이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경기한 것 같고, 팀 분위기도 정말 좋았다. 허던 대로 평소처럼 생각하고 경기에 임하니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왔다. 평소 꾸준히 연습한 게 우승의 밑바탕이 됐다”고 전했다.

이번 결승전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을 6회 병살타가 나왔을 때로 꼽은 김강민은 “더블 플레이가 나왔을 때 가장 뿌듯했다. 저는 줄 알았다가 계속 더블 플레이가 나와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강민은 야구에 대한 열정을 어린 시절부터 품어왔다.

그는 “야구는 유지돼야 재미있다. 아주 어려울 때부터 동네 친구들과 놀면서 야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인 야구까지 쪽 하게 됐다”며 “방망이를 휘두르는 순간의 짜릿함이 참 좋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야구를 열심히 하겠다. 팀원 중에서 저보다 더 잘하는 어린 친구들이 많다. 그들을 돕는 역할을 잘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무등리그-버서커 센프렌즈 양하성 “팀워크로 하나되는 매력에 푹 아버지뻘 선배들과 소통 기뻐”

“다양한 나이대의 선수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사회인 야구의 매력이지요.”

버서커 센프렌즈의 투수 양하성은 14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무등리그에서 MVP로 선정된 기쁨을 전하며 “올해는 꼭 최우수선수로 선정되는 게 목표였다. 이 상을 받게 되어 정말 영광이다”고 말했다.

양하성은 “우리 팀이 우승할 것이라는 자신이 있었다.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점수를 안 내주면서 이겼던 것 같다”며 “수비가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느꼈던 경기”라고 말했다.

양하성은 팀플레이로 하나되며 열정을 뽐내려는 야구의 매력에 푹 빠졌다.

“초등학교 3학년년부터 야구를 시작했고 중학교 때 사회인 야구를 처음 접했다”고 말한 그는 “당시에 느낀 야구의 매력이 정말 컸고 그래서 시작하게 됐다. 야구가 주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특히 팀원들 간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야구를 통해 사회성을 기를 수 있었던 경험을 말했다. 양하성은 “아버지 뻘인 선배 등 다양한 나이대의 선수들이 있는데 이들과 소통하며 사회성을 기를 수 있었다. 이 부분도 사회인 야구의 큰 매력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이 경험이 내가 더 나은 선수이자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